 금융위원회	보도자료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2018. 7. 30.(월) 14:00 부터	배포	2018. 7. 30.(월)
책 임 자	금융위 은행과장 전 요 섭(02-2100-2950)		담 당 자	서 지 은 사무관 (02-2100-2954)
	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장 박 창 옥(02-3705-5326)			이 윤 범 대리 (02-3705-5358)

제 목 : 은행권, 「무더위 쉼터」 전국 점포로 확대

- 은행권은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전국 점포를 쉼터로 개방 금융위원장, 은행 지점 무더위 쉼터 방문하여 격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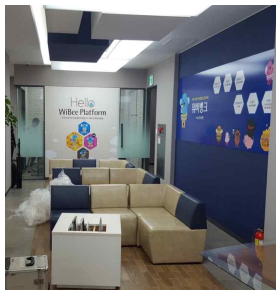
- 7월30일부터 전국 약 6,000개 은행 점포를 무더위 쉼터로 운영
- 최근 길어지는 무더위로 인해 재난 수준의 폭염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함
- 은행권은 이러한 재난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일부 점포에서만 운영되던 무더위 쉼터를 전국 점포로 확대하기로 결정

< 은행권 공동 무더위 쉼터 운영 계획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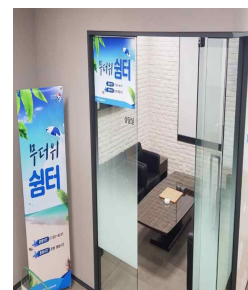
- (운영 기간) 18. 7. 30(월) ~ 8. 31(금), 은행 영업시간 내
- * 위 운영 기간 이외에도 은행 자체 판단에 따라 연장 가능함
- (제공 편의) 지점 내 상담실·고객 대기 장소 등을 무더위 쉼터(안내판 부착)로 운영하고, 냉수 등 편의물품도 제공함

< 무더위 쉼터 운영 사례 (우리은행 종로YMCA 지점) >

[이 전]



[무더위 쉼터 운영 시]



※ 고객 대기 장소에 식수대를 비치하고, 상담실은 의자를 소파로 교체해 쉼터로 활용

□ 고용진 의원은 “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들이 무더위 쉼터 제공에 뜻을 모아준 것을 환영한다”면서, “지역주민들과 이용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회공헌 사업이 더욱 늘어나길 기대한다”고 밝힘

□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국 은행 지점에서 무더위 쉼터가 운영되는 첫날, 서울 종로에 위치한 우리은행 YMCA 지점을 방문

○ 국민들에게 금융 서비스와 함께 쉼터 공간도 함께 제공하는 지점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 인사를 전함

※ 방문 점포의 무더위 쉼터 식수대에 둘 금융위원회 유리컵 기증

- 특히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 등이 눈치 보지 않고 은행점포에 들렀다 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함

○ 또한, 최근 은행권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실천 노력을 환영하면서, 무더위 쉼터와 같이 일상생활과 가까운 사회공헌 활동도 계속 진행되기를 희망하고, 금융위도 적극 지원*할 계획임을 밝힘

* 금융산업 공익재단(가칭)에 대한 빠른 설립 인가 추진 등

- 특히, 은행권 수익이 은행권내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냐는 사회전반의 비판적 인식에 보다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 줄 것도 부탁함

□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「은행권 공동 무더위 쉼터 확대방안」을 소개하는 자리에서, 은행권은 그동안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, 서민금융,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해 왔다고 강조함

- 특히, 일자리 창출, 보육지원 등을 위해 향후 3년간 7천억 원 규모의 공동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고, 무더위 쉼터와 같이 국민 중심의 사회공헌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함
- 앞으로도 금융위와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무더위 쉼터 운영을 격려하고,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